

[시티 & 피처]

■ '세계 최고의 철통 보안'
풍암동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가보니

내년 1월 본격 가동에 들어갈 광주시 서구 풍암동 제2정부통합전산센터가 첨보영화 수준을 뛰어넘는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준공식 이틀 후인 지난 23일 오후 2시, 기자는 이사가 한창인 전산센터를 방문했다.

보안장치 6차례 통과해야 전산실 입성

X선 검색대→휴대폰 메모리 봉인→IC카드 인식→체중 판독→지문 판독→손등 정맥 인식기

도착하자마자 정문 경비실에 신분증을 맡긴 뒤 위치인식카드를 발급받았다.

경비원은 "이 카드에는 무선 이동 인식 시스템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내장되어 있어 방문하려는 층 외에는 어디에도 갈 수 없으며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 된다"고 설명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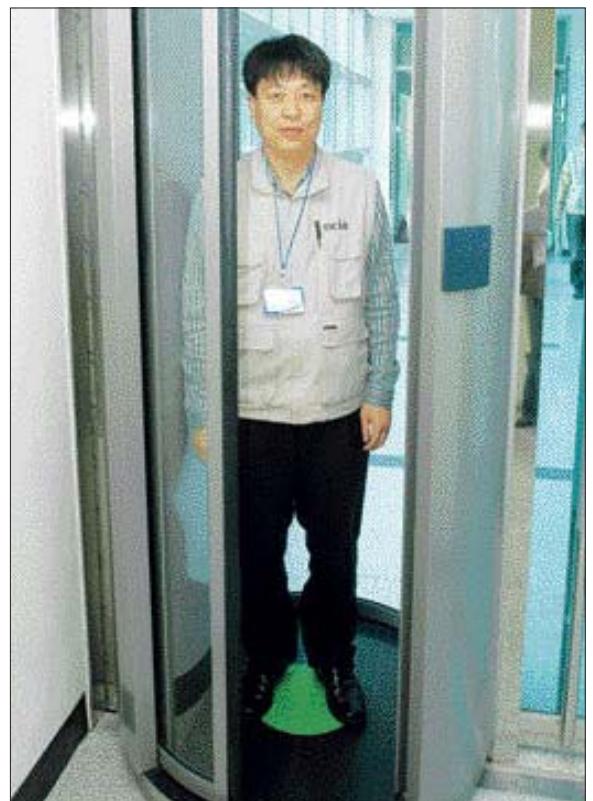
만일 위치인식카드가 30초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곧바로 상황실로 통보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 때조차 30초마다 한 번씩 카드를 흔들어 줘야 별 탈 없이 일을 볼 수 있다. 전산센터 내에서는 어디든 누구든

(Tube)라고 불리는 원형의 보안공간을 통과하는데, 정사무관의 도움을 받았다. 정사무관은 "IC카드에 등록된 출입자의 체중과 실제 체중을 확인 일정 기준 이상의 몸무게가 차이가 나거나 100kg을 초과하면 출입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튜브를 지나자, 엘리베이터가 나왔다. 정사무관이 IC카드를 대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도착한 3층 전산실 앞, 이곳도 그냥 들어갈 수 없었다. 전산실 근무자가 자신의 고유번호를 누르 뒤 지문인식기에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등록했다. 다시



정부 시설보안담당 사무관이 문 옆에 설치된 생체인식 시스템인 정맥인식기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튜브'(Tube)라고 불리는 원형의 보안공간을 통과해야 전산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4개 부처 전산장비 3,750대 이전

대한민국 정보화 전략기지 역할 수행

감시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건물 현관 앞에 설치된 금속탐지기와 엑스레이(X-ray) 검색대를 통과한 뒤 운영검색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았다.

휴대전화에 있는 메모리 용량을 확인한 뒤 카메라 렌즈와 메모리 카드가 있는 부분에 봉인(封印) 테이프를 붙인 뒤에야 둘러 받았다. 뜯었을 경우 'OPEN'이라는 글씨가 나타나 뜬은 흔적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용 스티커였다.

보안용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야 시설보안 담당인 정치국 사무관이 안내를 해주기 시작했다.

전산센터 내부의 모든 문은 직원에게 발급되는 IC카드로만 열 수 있으며 방문자에게 지급되는 위치 인식카드로는 엘리베이터 문조차 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모든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동으로 들어가는 통로 앞, 일명 '튜브'

정맥인식기에 손등을 대고 핏줄 판독 과정을 거치자 전산실 문이 열렸다.

전산동 안으로 들어가는데 무려 6개 관문을 거쳐야 하는 셈이다.

건설교통부 등 24개 정부 기관의 업무관련 서버 2천50대 등 전산장비 3천750대가 운용되는 대한민국의 정보화 전략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라는 것이 정사무관의 설명이다.

전산센터는 무정전원장치인 UPS(Uncountable Power Supply)와 이중전원공급설비를 갖췄으며, 정전이 될 경우 2개의 변전소와 1개의 비상 발전기의 자가발전을 통해 최대 90시간까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두께 55cm 콘크리트 외벽과 방탄유리로 만들어진 전산센터는 리히터 규모 7.0수준의 진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특등급으로 설계됐다.

국가의 모든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동으로 들어가는 통로 앞, 일명 '튜브'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겨울철 폭설 걱정 마세요”

광주시, 상황실 설치…제설 대책 마련

광주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설 예보가 떨어지면 24시간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 근무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고가도로, 교량, 급경사지 등 폭설 취약지구 361곳에 적사함과 모래주머니를 비치했다.

시는 자치구, 도로공사 등 유관기

관과 함께 폭설 시에 인력 553명과 제설장비 79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복구 체계도 갖춘다.

시는 취약지점 인근 상가 및 주택에 염화칼슘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을 지정·운영하고 아파트 단지나 주택

앞은 주민들이 직접 치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겨울철 폭설을 교훈 삼아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 자재를 지난해에 비해 115% 이상 확보했다"며 "눈이 내리면 집 앞을 먼저 쓰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도회장 투재선 (주)금강전력
도부회장 임재신 (합)거송전기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
한국전기신문사
한국전기신문사

이사 송삼홍(유)삼하전력
이사 최남순(주)성모건설
이사 양시훈신우전력(주)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로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 원 장 원	(주)금강전력 (합)거송전기
위 원 장 원	주정환 최남순 김상수 양시훈 강태오 강이열 문영식 나일도 김철수 이동길 김병문 장준근
위 원 장 원	(주)남도 (주)성모건설 (주)조광전기 (주)신우전력 (주)원광전력 (주)대광전력 (주)동신 (주)청호건설 (주)푸른전기 (주)삼도 (주)여천전력 (주)온전력 (주)우성전력
위 원 장 원	류재선 임재신

윤리위원회	
위 원 장 원	(주)금강전력 광명명전 두산전력 (주)중국원보 (주)아진전 (주)대한전기 동부아전 주진화 (주)수산전 (주)우신 (주)효원전
위 원 장 원	류재선 학성훈 강성훈 이운수 문원태 장재철 김재준 김경희 김정임 김정호
위 원 장 원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위 원 장 원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중앙회 위원	
중 앙 회	이사 (유)삼하전력 법전기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대 외 협력 위원회 위원장	(주)남도 비상대책분리발주실무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기 회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금강전력 기 회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장
국 제 협력 위원회 위원장	(주)수산전력 국 제 협력 위원회 위원장
인 사 위원회 위원장	(주)효원전력 인 사 위원회 위원장
기 술 정책 위원회 위원장	(주)우원 기 술 정책 위원회 위원장
기 술 개발 위원회 위원장	원광전력(주) (유)현대엔지ニア링 기 술 개발 위원회 위원장
기 술경영연구원 운영 위원회 위원장	(주)협선 기 술경영연구원 운영 위원회 위원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광주시, 인도 시장 개척 큰 성과

6,800만 달러 수출 MOU…금형시장 교두보 마련



박광태 광주시장이 지난 23일 인도 멜리 주 쉴라 딕스 총리를 방문해 양 도시 간 경제·문화교류를 추진키로 약속한 뒤 약수하고 있다.

광주시가 인도에서 벌인 첫 시장개척 활동에서 6천800여만 달러어치의 수출계약 양해각서(MOU)를 성사시키고 금형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박광태 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경제협력·시장개척단'은 지난 21일과 23일 인도 뮤비아와 멜리에서 2차례 수출 상담회를 가졌다. 광주 지역 광통신, 금형산업, 정밀기계산업 대표 등 30여명의 시장개척단은 상담회에서 14건 6천841만5천달러의 수출계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지난 23일 멜리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상담회에서는 155건의 상담을 벌인 결과, 9건 4천131만5천달러를 수출하기로 했다. 글로벌 광통신(주)는 (주)인디아코아에 광분배케이블 1천435만5천달러 상당을 수출하기로 계약했고, LED업체인 (주)지론테크놀러지는 (주)더블유브이에 100W 경관조명 1천35만달러 어치를 수출하기로 했다.

(주)포인텍은 니르바이사와 연막소독기 기류 1천만달러어치, (주)오플라스테크놀러지는 나이나 세미컨덕터

100W 경관조명 1천35만달러 어치를 수출하기로 했다.

광주시 경제협력·시장개척단은 23일 멜리 그랜드호텔에서 광주 산업·투자환경 설명회를 갖고 인도산업연합회(CII)와 산업정보교류, 상호 진

시회 개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MOU를 체결했다.

또 지난 22일 600여 회원사를 가진

缪비아의 인도금형산업협회를 방문해 양도시 금형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박광태 시장은 "시의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한국기술원 등 연구·개발

기관의 지원, 기업체들의 노력 등이

합쳐져, 광주시가 사상 처음으로 인

도시장을 개척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서자기 캠페인 등 6개 분야로 나눠 4차례에 걸쳐 서면과 현장 평가 방법으로 각 구의 활동을 평가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결의문을 내고 "시의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시는 "정당한 평가를 오

도함으로써 기초질서 지키기에 협

신해온 시민들의 힘과 노력을 무

시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표출"이

라고 일축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제전 '기초질서 지키기' 북구 1위

서구 2위·동구 3위

지난 10월 광주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제전에 맞춰 5개 자치구가

벌여 온 '기초질서 지키기' 활동 평가에서 북구가 1위를 차지했다. 서구에 북구 1위를 차지했다. 서구와 동구는 각각 2, 3위에 올랐고 광산구와 남구는 공동 4위에 머물렀다.

시는 공중 화장실 관리, 옥외 광고물 정비, 불법 노상적지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가지 청소, 질

생활안내

신고

교통안내	●기정법률상담소 부경북부법률상담소 671-4050 광주YWCA 527-0011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대한민국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방범민원상담 광주YWCA 233-7571 ●법무사회 법률상담(26일) 박도하 233-7571 ●법무사회 법률상담(26일) 박승영 370-0600

<tbl_r